

*양산이 꿈을 꾸었다. 미륵이 계신 곳에 가는 꿈을. 세 번째 자리에 좌정하자 한 존자가 추를 울리며 말했다. "오늘은 제 3좌가 설법할 차례입니다." 양산이 일어나 추를 울리고 말하였다. "마하연(摩訶衍)의 법은 4구(句)를 떠나고 100비(非)를 끊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오."

한형조 무문관 탐방

40 양산의 꿈 이야기

의사봉이나 법원의 판결을 받기를 연상하면 되었다. 아무튼 이 질문에 양산은 당당히 일어나 짧게 설법한 다음, 좌우를 둘러보며, "알겠는가. 이 말을 명심하였다"라고 주문하고(?) 법상을 내려놓았다.

그 설법 내용이 "마하연의 법은 사구를 떠나고 백비를 끊는다"이다. 마하연이란 마하야나의 용사이다. 큰 수레, 즉 대승을 가리킨다. 사구백비는 대승공관의 논법이다. 사구(四句)란 '일(一) 이(異) 유(有) 무(無)를 가리킨다. 진여인 세계에 대해 인간이 부여하는 인식론적 범주의 원형에 해당한다. 있고 없다(有無)한 짝이 같고 다르다(一異)가 다른 한쪽이다. 모든 판단과 사고는 이 범주를 축으로 분화 파생되어 있다. 공공생각해 보면 그 집을 쉬간파할 수 있다. 공공은 이들 범주가 인간중심적 오해와 편견의 소산이라 고 믿고 그 뿌리를 논라해 나간다. 노장이면 시

"나 해개가 말한다. '어디 말해보라. 이것은 설법인가 설법이 아닌가. 입을 열면 틀린다. 입을 다물어도 목숨을 잃는다. 열지도 다물지도 않아도 심만팔천리. *송하여 가로되, '흰한 대낮에 어인 꿈이며 거기가 잠꼬대까지. 괴이찍기도 하여라. 대승을 속여 혼을 빼놓는구나.'"

三座說法: 山和尚, 夢見往彌勒所, 安第三座, 有一尊者, 白極云, 今當第三座說法, 山乃起白極云, 摩訶衍法, 離四句絕百非, 離諸諦, 無門, 且道, 是說法不說法, 開口即失, 閉口又喪, 不閉不閉十萬八千, 罽曰, 白日青天, 夢中說夢, 捏怪捏怪, 一衆.

양산(807~883)은 스승 위산과 더불어 선종 5파 가운데 하나인 위양종을 연 거장이다. 위양의 종풍은 온건하고 치밀하다. 임제의 과격이나 역문의 파격과는 다른 경조를 갖고 있다. 불남 일을 풀리는 잔잔한 여울같다거나 할



"4句 떠나고 100非를 끊습니다"

禪은 머리 아닌 몸으로 현실 구현

가. 양산의 전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송고승전>은 그가 15세에 출가를 결심했다고 적고 있다. 부모의 반대에 부딪쳐 2년을 끌다가 원손 끝 손가락 두 개를 자르고서야 허락을 얻었다고 한다. 처음 해동국사의 법승인 탐원(耽源)에게 갔다가 위산(위산)의 영우(靈祐)를 만나 정착하게 된다. 위산과 양산의 종풍을 알려주는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

적 직관적 방식으로 슬그머니 일깨우겠지만 불교는 인도유리피안적 전통에 걸맞게 논리적 분석적 방식으로 지적 들어간다.

우선 사구 하나하나가 성립될 수 없는 범주임을 제시한다. "갈다(一)는 것은 실제 갈다는 것이 아니다. 갈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갈지도 않고 갈지 않은 것도 아니다. 갈지도 않고 갈지 않은 것도 아니라라는 것도 또한 아니다." 하나의 범주에 가능한 네 가지 사유의 가능성을 모두 빼앗긴 우리는 다음 범주에 기대를 걸어도 무리인 이 또한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네 가지에 곱한 네 가지, 즉 16가지가 부정되었다. 이 부정은 현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 미래까지 걸친 진실의 기에 곱하기 3하여 부정은 48개로 늘어난다. 논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미 일어난 인식론적 착각 혹은 오해뿐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도 미리 부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연(已然)과 미연(未然)의 두 차원을 곱해 부정은 96으로 늘어난다. 이에 본래의 사구 자체를 더해 100개가 된다. 이같은 철저한 부정의 현실을 사구백비라 이름한다.

누누이 말했듯이 선은 이같은 이론적 분석적 부정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이론이 아닌 현실로 구현하자는 불교혁신이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이주 오래전의 일이다. 큰스님 한 분이 필자에게 이런 화두를 던진적이 있다. 관세음보살에게는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이 갖추어져 있다는데 그중 어느 눈이 참관(眞觀)이냐는 질문이었다.

호두 참구라고는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던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제 넘게 답변을 드렸다.

초안즉일안(千眼即一眼)이요, 일안즉공안(一眼即空眼)이라, 공안비진가(空眼非眞觀)이거늘 하쳐문진안(何處眞觀眞眼)인가, 즉, 관세음보살의 천개의 눈은 바로 하나의 눈인데 그 눈은 바로 공한 눈이다. 공 한 가운데에는 참과 거짓이 없거늘 어디에서 참된 눈을 뵈옵습니까? 하는 내용이였다. 그야말로 하룻강아지 울타리가 있어서 대꾸하는 식의 응답이 아닐 수 없다. 아니 응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질문에 대한 해석이런 반문이었으니 그에 대한 큰스님의 다음 대답이 좋으니 만무했다. 곧 큰스님께서는 "내가 정안(바른눈)을 그대에게 물었다. 질문이 확실하면 답변이 확실해야지 한귀절마다 오십방망이씩 몽둥이를 맞으리라. 다시 연구해보고 오너라." 하시는데 그것이였다.

그뒤로 필자는 이 천눈 가운데 있는 진짜눈을 찾기위해서 항상 의심해 고던중 하나의 결론을 뒤늦게서야 느끼게 되었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아직 그 큰스님으로부터 검증받지 못했다. 일반인들에게 있어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 이해되고 있다. 열심

法數로 배우는 불교

<50>

천수천안

이 기도하고 빌면 중생의 정성에 감응하여 소원을 이루어주는 절대적인 능력을 갖춘 보살중의 보살이 관세음보살인 것이다. 하지만 진리를 대화시키지 않으려는 선(禪)의 세계에 있어서는 일체의 불보살을 마음 밖의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역시도 상대로 보고 구하지 않는다. 선에서 않으려는 관세음보살은 몸이 아프고 생활이 곤궁해서 부르고 매달릴때 신처럼 보이지 않게 나타나서 복을 던져주고 가피를 내려주는 관세음보살이 아니다. 선에서는 관세음보살이 자기의 참 마음이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은 입으로 마음으로 매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수행을 해서 열어야 될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 다.

본래 불교 신도들에게 있어 신앙의 대상으로는 으뭇하게 숭상되고 있는 관세음보살은 아바라기테슈바라(Avalokitesvara)로써 불보살중 대자대비가 가장 으뜸인 분으로 세상의 소리를 관할하는(觀世音), 혹은

세상의 소리를 빛으로 비추는(光世音), 세상을 자유자재하게 보는(觀世自在)의 뜻을 지녔다. 대승경전 거의 모든곳 마다에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고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 근거에 따라 32가지의 이름과 형상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러나 육도중생을 제도할때 나타내는 성관음, 천수관음, 십일면관음, 여의륜관음, 마두관음, 존재관음 등 육관음외에 불공견색관음, 백의관음, 열의관음, 다라관음, 대세지관음, 용두관음, 지경관음, 인광관음, 유희관음, 연화관음, 시약관음 등인데 이 가운데 성관음이 본래의 몸이고 다른것은 인연

지혜·자비 상징하는 관음보살의 손과 눈

참된 가피력은 내 마음에 있어

따라 변화하는 방편의 몸이다. 사찰에 모셔져 있는 관음상중 가장 많은 형태로는 머리에 쓴 관에 아미타불이 그려져 있는 성관음이나, 버드나 무가지를 들고 있는 양류관음, 약방을 들고 있는 시약관음, 머리에 열한 개의 얼굴이 달려있는 십일면관음, 천개의 손과 눈을 갖추고 있는 천수관음의 모습이다. 천수천안은 원손

과 오른손이 각각 열개씩 달려있는 데다 이 손 하나 하나씩 열개의 이십오종류의 중생 즉, 지옥·아귀·축생·아수라·동승신주·서구로주·남승부주·북승단칠주·사왕천·도리천·아미천·도솔천·화락천·타화자재천·조선천·범왕천·이선천·삼천천·사천천·무상천·오나함천·공무변천·식무변천·무소유천·비상비비상천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이 손바닥에는 똑같은 갯수의 눈이 달려 있으므로 볼 수 있는 자비를 상징하고 눈은 지혜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때 이세상과 모든 중생은 관세음보살의 손으로부터 벗어나 존재가 없고 눈으로부터 비취지 못하는 존재가 없다. 그 손과 눈은 우주에 확장 손이며 확장 눈이다.

모든 중생에게는 고통과 번뇌와 윤회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속에 비록 보이는 체형되지 않았고 망경 절대의 지혜 절대의 자비가 있고 온갖 고통을 쉬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천수천안의 관세음보살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밖의 모습이 아니다. 25종류의 중생심도 내 마음에 있다면 그 25종류의 중생들을 낚아채 줄어 보고 제도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 내 마음에서 나타난다. 과연 천수천안의 참된 손과 눈은 언제 볼 수 있으며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비록 어렵고 방황하는 마음일 망정 그것을 등지고는 아니 되리라.

이제 열 (유마선원장)

불교와 수학

43

대중화

김용운

수학은 대중을 의식하지 않고 수학자들만으로 된 독자의 세계에서 폐쇄적으로 발전해 왔다. 수학 이론이 과학, 기술에 이용됨으로써 현실의 사회에 더 영향을 줘 온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그 내용을 대중들에게 친절하게 알리는 일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보다는 오히려 수학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를 구축하는 일에 온갖 자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그 내용이 어려울수록 이해하는 사람은 적다. 아인슈타인이 처음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을 때 그 내용이 너무나 복잡하기에 상당한 수준의 과학자들도 충분히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인슈타인은 전세계에서 진정 자신의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5명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을 발명했다는 자량이 다분히 섞여 있었을 것이다.

하루는 그가 평소 이용하는 단골 구멍가게에 들렀더니 주인이 '오즘 당신의 이름이 자주 신문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상대성 원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리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전문 과학자라면 감히 물어볼 수 없었을 테지만 제대로 된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가게 주인은 서슴없이 '당신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과학자인데 분명히 내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겠지요?' 라는 말까지도 덧붙여 물었던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불그레 웃으며 말했다. "자네, 얼굴을 보니 잘 생각군. 젊은 시절에는 아가씨들에게 꽤나 인기가 있었겠지? 그러자 주인은 '물론이지요. 이례해도 나는 마을에서 제일 인기가 높던...' '아, 좋아

학자들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론을 단 2분만에 무식한 저에게 이해시키시더니!' 장난기가 많았던 아인슈타인은 재미있는 비유로 상대를 납득시켰으나 굳이 그 가게 주인에게 상대성 원리를 이해시킬 마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상대성이라는 것만 전했던 것 같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나 자신은 전문 과학자들도 평이한 일상적인 말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했고 중국을

수학 전문이론 쉽게 설명 이해 넓히길 불교 교리해석 방편필요...이단 피해야

좋아. 그렇다면 데이트도 많이 했겠지? 봄밤에 꽃향기 나는 곳에서 그녀와 단둘이 하룻밤을 지새며 이야기할 때는 시간가는 줄 몰랐을 것이네. 그런데 한 여름에 무거운 오버코트를 입고 활활타는 난로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게. 어떨까? 시간이 무척 지루하게만 느껴졌겠지? 같은 시간이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 빨리 갈 때도 있고 지루하게 지나갈 때도 있다네. 그것이 바로 상대성 원리라는 것이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과연 노벨상을 받은 학자님은 다르군요. 전문 과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당연한 결과로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불교경전은 모두 어려운 한자어 쓰여져 있었다. 특히 불교교리의 밑뿌리에 있는 불교철학은 자연철학의 기반 위에 엄밀한 논리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비전문가는 좀처럼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불교는 전문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동맹한 중생을 위한 것이다. 교리는 불교의 큰 뿌리이며 목적은 불교의 구제에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을 가르치고 이슬에 태어난 이유를 깨닫게 하고 편안하

게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한다. 인생에 관한 심오한 철학과 사상이 엄밀한 논리로 표현될 때는 언어의 선택부터가 크게 제한을 받으며 논리는 엄격하다. 이 내용을 한 중생의 능력과 지식의 수준에 따라 새겨서 설명할 때는 자칫 이단적인 해석이라는 꼬리 문에도 생길 수가 있다. 종교의 목적은 구제에 있으며 학문적 이론의 전개가 아니다. 그렇기에 과학이 과학의 수단이 채택된다. 즉, 상대를 보고 편하게 설명하는 일이다. 여기서 방편과 이단의 기준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큰 깨우침은 높은 신봉우리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산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길은 많다. 어느 길로 가도 별 상관없다. 다만 그것이 위험한 절벽에 가거나 영영 미로에 빠지거나 하는 일은 이단이며 피해야 할 것이다. 이 사실은 수학(과학)의 대중화에도 공통되는 일이다.

이 지면을 통해서 '불교와 수학'에 대해서 쓰기 시작하지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 목적은 수학적 언어를 통한 불교 교리의 접근이며 수학자의 방편이기도 하다. 수학과 불교는 결보기에는 동떨어진 분야처럼 보인다. 방편의 수단이 영동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도 감히 이 엄정한 작업에 나섰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불치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 우환과 액운으로 고통받는 가정 건강과 행복, 출세를만겨주는 신비로운 민간요법

명당자리 氣요법

· 제 조원: 이명무 오링테스트 연구회
· 판역원: 기원정사 천도원(세정개발 주식회사)
· 주 문: ☎ 052) 223-0491~2
☎ 052) 249-8751

◆우울증, 치매, 정신병, 간질, 근무력증, 만성피로, 원인불명질환, 중풍, 언어장애, 난청이명, 불면 증, 불임증, 당뇨병, 축농증등 현대의학으로 치료 안되는 환자, 사업실패, 불운, 가정불화, 비행청소년, 기타 우환과 액운이 따르는 사람에게 권합니다.

명당자리 요법이란?

- ▶ 묘지요법 (영혼천도 및 묘지 명당 만드는 법)
- ▶ 유해전자파 중화요법 ▶ 찜질 및 목욕요법 등

현대 의학과 민간요법을 조화시켜 종합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킨 합리적인 요법이다.

특히,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 만성병, 불치병, 원인 불명의 질환이 거의 대부분 조상의 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명무 약사가 오링 테스트를 통하여 세계 최초로 확인하여 임상적으로 증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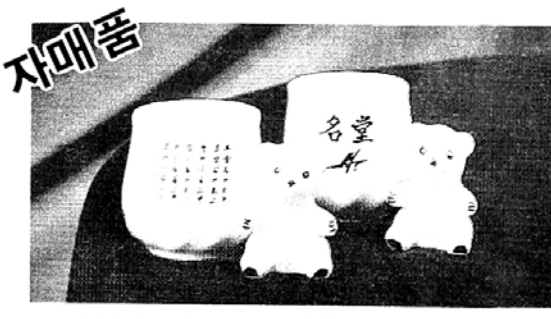
놀라운 것은 이러한 종합적인 명당자리 요법을 통하여 정신병 환자가 호전 반응을 일으키고 치매, 신근 경색 증 환자가 양호한 상태로 변화되는 등 실제 임상상을 통하여 입증시킨 새로운 학문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며 다가오는 21세기의 의학계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다.



▲ 조상을 편히 모셔드리는 명당도자기

묘지요법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하여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명무 약사가 세계 최초로 연구하여 조상의 묘가 잘못되면 실제로 그 후손이 나쁜 기를 받아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고 사업실패, 영업부진, 불운과 가정불화, 비행청소년, 기타 예고없는 사고등 액운이 따르므로 이런 사람은 지체없이 고인의 묘지에 명당 도자기를 묻어 주거나 유골을 모시면 고통받는 영혼이 완전히 편안한 영혼으로 변화되어 후손들의 질병도 치료되고 당대 발복하여 행운이 따라와서 출세를 누릴 수 있는 불가사의한 치료법이다. (특히, 객사죽음, 화장한 영혼은 한이 많은 영혼이라서 천도가 잘 안되지만 명당도자기 요법으로 100% 천도가 됨) 유해 전자파 중화요법, 찜질 및 목욕요법, 건강 식품 요법 등은 위 상품란에 참고 하시고 상세한 것은 전화 문의나 서증서점에서 이명무 지음 '신비의 오링테스트와 명당자리 기요법'을 구입해 참조 하시기 바람.



명당컵

- ① 명당컵을 TV에 올려 놓거나 전자렌지, 냉장고 안에 넣어 두면 신비로운 기의 작용에 의해서 유해전자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② 명당컵에 물을 담으면 건강수가 되고, 그 물을 이용하여 찜질 및 목욕을 하면 할력순환이 잘되어 피로회복은 물론 피부가 부드러워진다.

전국 시·군·사찰지사 모집

남여 불문 선착순 계약

주변에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신도가 없는지? 갖은 노력을 해도 실패만 거듭하는 신도는 없습니까? 스님들을 통해서 그 효력이 100% 발휘되는 명당자리 기요법! 놀랍고 불가사의한 비전! 신비로운 작용. 그 전부입니다.

- '불황에도 투자액의 배액이 보장된다.'
- 독점 품목이다.
- 투자에 대한 위험이 없다.
- 신도들의 서원을 100% 충족시킨다.
- 간편한 방법으로 영가 천도는 반드시 된다.

명당자리 기요법 세미나 안내

100%조상 천도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일시: 1998년 2월 16일 오후 2시~
● 장소: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태화사' 불교회관
● 동참회비: 무료
* 참가 희망자는 2월 14일까지 전화 신청바람.
(052)223-0491~2 (동양스님)